

주간기도정보

2024. 10. 1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주요 교단들, ‘10.27 연합예배’ 동참 선언 잇달아...“연합·회복 첫걸음”

주최 측 “연합이야말로 악법 저지의 유일한 힘”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9월 정기총회에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잇달아 표명한 가운데, 주최 측은 이 예배에 대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교회의 분열을 넘어서 연합과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예장 합동, 통합, 백석, 고신, 대신, 합신, 한영 등은 각각 이번 9월 정기총회에서 10.27 연합예배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결의했다. 이에 이 대회를 처음 제안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교회의 연합이야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며 “한국교회 역사를 새롭게 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악법 저지와 한국교회의 신앙 회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주최측은 “특히 최근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혼 합법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표어로 삼은 이번 연합예배에 주최 측은 100만 성도가 현장에서, 또 다른 100만 성도가 온라인으로, 총 200만 성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이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합 기도회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미 지지를 표명한 교단 외에도 많은 교단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교단장들의 참여를 호소했던 오정호 목사(거룩한방파제 대회장)는 “거룩한 동맹이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라며 “이번 예배를 통해,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결단을 다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릴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사회는 물론 교회까지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동성혼 합법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연합예배는 신앙적 결단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행사로, 자립준비청년, 탈북민, 미혼모 돌봄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후원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최 측은 “헌금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한국교회는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도 함께 다 하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라고 했다.

헌혈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헌혈 문화 확산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순한 기도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도 다할 예정이다. 신앙적 결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며, 자립준비청년, 탈북민, 미혼모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도 제공한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아굽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충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29:23-24)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베드로후서 3:11-13)

하나님, 차별금지법 제정의 위기가 고조되는 이때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거룩한 동맹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도록 뜻을 모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여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간계에 맞서 모든 성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10.27 연합예배에 한국교회가 겸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교훈을 받아 주를 경외케 하소서. 주님, 한 번의 큰 연합예배를 넘어 한국교회에 주의 인자와 진리로 새롭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소서”

북, 형법상 사형 죄목 11→16개로 늘려…무기·탄약 통제 강화
통일연구원 분석…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전 ‘통일’ 들어간 조문도 삭제



북한이 2022-2023년 형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포하기 전에 형법에서는 이미 통일이 포함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 황주희 북한인권실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2022년 5월 17일 개정 형법과 2023년 12월 24일 개정 형법을 비교해 27일 발간한 ‘2023년 북한 개정 형법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2022년 12월 24일과 2023년 7월 29일에도 형법을 개정했지만, 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형법상 사형이 가능한 죄목은 2022년 5월 11개에서 2023년 12월 16개로 5개 증가했다. 법정 최고형에 사형이 추가된 5개 죄목은 ▲ 반국가선전·선동죄 ▲ 무기·탄약비법제조죄 ▲ 무기·탄약비법사용죄 ▲ 폭발물비법제조·보관죄 ▲ 폭발물비법사용·양도죄이다.

이는 무기와 탄약, 폭발물의 불법적인 제조·사용·양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김 위원장과 그 일가의 안전 도모를 강화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형법은 체제 보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북한이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는 와중에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國旗)와 국장(國章)을 훼손하면 5년 이하, 죄질이 무거우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형법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할 경우 법정형을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10년 이하 노동교화형으로 높인 것 또한 체제 보위 강화 조치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보고서는 “체제 보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부 정보, 문화 유입이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또 형법에서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 자에 대한 형사책임’, ‘조선민족해방운동단압죄’를 형법에서 삭제했는데, 해당 조문에는 원래 ‘조국통일’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포한 뒤 통일을 포함한 남한과의 연결고리를 지우라는 지시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형법 개정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지난해 12월 26-30일 노동당 전원회의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북한이 형법에서 통일이 들어간 조문을 삭제한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당 전원회의보다 앞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통일 지우기’는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이사야 61:1-2)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브리서 2:14-15)

하나님, 김정은 일가의 안전을 위해 무기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북한 체제의 불안정함을 매우려 형량을 가중하는 부패하며 어리석은 북한을 다스려 주십시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김정은 정권을 꾸짖으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깨닫게 하소서. 여러 적대국을 만들어 스스로 고립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백성들을 압제하여도 주님은 이 땅을 향한 구원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몸 된 교회에 여호와와 영이 함께 하사 북한을 향한 간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이 땅에 선포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이 놓임을 받아 영과 육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공부약’ 불리는 마약류 ADHD 치료제 10대 처방, 3년새 두 배로
ADHD 증상이 없어도 치료제를 처방받는 방법이 올라오기도...



의료용 마약류 중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량과 처방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에 처방된 ADHD 치료제의 처방이 3년 새 두 배로 증가했다.

10대 이하 연령층에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한 사례는 지난해 총 12만 5천73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전체 처방량은 전년도에 비해 10대가 17,79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20대 16,157명, 30대 13,126명, 40대 4,032명 순이었다. 이보다 3년 전인 2020년 총 6만 5천685건에서 96.5% 증가한 것으로, 두 배 가까이 처방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다른 의료용 마약류 처방 증가율 현황을 보면 진통제는 5.1%, 최면 진정제 18.6%, 마취제 30.4% 등의 증가율을 보여 ADHD 처방 사례 증가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DHD 치료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 ‘공부약’으로 불린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DHD 증상이 없어도 치료제를 처방받는 방법이 올라오기도 한다. 해당 치료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나’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이 치료제가 약물 의존성을 키우고, 다른 약물에도 빠지게 될 위험성도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ADHD 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이 아이들의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며 “수험생들이 ‘공부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약의 부작용과 중독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고 오류나 미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하여 정확한 보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여 오남용 방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와 처방량이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해당 치료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추가하여,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에게는 처방 제한이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메틸페니데이트의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은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처방할 것 ▲1회 처방 시 3개월 이내로 한정할 것 등이다. 또한,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과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기획 감시를 시행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출처: 연합뉴스, 기도24:365본부 종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베드로전서 1:3-4)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린도후서 4:18)

하나님, 의료용 마약류로 구분되는 ADHD 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으로 1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주께 고하며 학업성취에 무너진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약에 의존해 세상 성공을 좇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부모세대를 꾸짖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 앞에 돌이켜 나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녀세대를 진리로 양육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는 비결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 의를 따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주를 사랑하는 이 땅의 다음세대를 통해 한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